

외국어 특화 교육에 AI 콘텐츠 더해... 새로운 교육모델 개척

2025 사이버대 가이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집약해 2004년 개교한 이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 학생 중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내적 혁신을 거듭하며 가파르게 성장해 온 사이버한국외대는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아 제2교사인 CUFS20을 준공해 대학의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콘텐츠에 활용하고 교육과정에도 반영했다.

◆일반대학원 신규 설치 교육부 인가

사이버한국외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학부 입학정원 150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올해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AI& English학과와 글로벌한국어학과 두 개 전공의 일반대학원 신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학부 150명 증원... 대학원 신설도 6개 외국어학부, 실무 전문가 육성 사이버대 최초 'AI&English' 개설 빠른 습득 가능한 소단위 전공제도

구 설치 인가를 받아 사실상 석사과정 입학정원 역시 120명이 증원됐다. 이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탁월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검증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언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을 아우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의 외국어학부와 ▲경영 ▲지방행정·의회 ▲산업안전·주택관리 ▲다문화·심리상담 ▲K뷰티 등 실무 전문가 육성에 특화된 사회과학·실용 5개 학부의 도합 11개 학부, 19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외국어+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언어+실용학문'의 융

복합 교육과정 ▲'실용교육+유망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24학년도 2학기 영어학부 AI&English 세부전공을 개설했다. 또한 2025학년도 1학기에 문을 여는 일반대학원에도 AI&English 전공을 마련, 해당 전공의 학부 졸업 이후 석사 과정 연계 진학을 통해 더 깊은 학문의 연구도 가능하게 됐다.

◆실무 역량 초점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사이버한국외대는 기술혁신에 따른 급속한 사회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시행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의 학위과정에 비해 훨씬 적은 이수학점으로 구성돼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에 맞춰 보다 빠르게 해당 과정의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제도다.

아울러 개교때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의 개척에 동행해왔다. 특히 2018년 한국외대와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는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의 다각화와 활성화를 통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양교간 학점교류를 통해 정규학과와 방학기간 중 집중학기(계절학기)에 양교 학생들이 상대교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학생맞춤형 장학제도도 구축했다. 교내 장학제도인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달 16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916명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 위탁, 학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사편입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등 정원 외 특별전형 2740명으로 총 4656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민 "경희궁·한양도성 완전 복원해야" 서울교육청, 학생·학교 중심 조직개편 단행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에 제안 접수 역사 가치 지닌 곳 우선적 복원 요구 시, 예산 규모 커... 장기과제로 검토

서울시민들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희궁과 한양도성을 조선 시대 때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복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경희궁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됐다.

청원인 A씨는 "경희궁은 그 역사가 매우 깊고, 서쪽도를 보면 당시 매우 큰 궁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수변공원은 잘 만들면서 경희궁 복원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경희궁 복원에 우선적으로 편중시켜 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외국인들이 궁궐을 보러 오지 자기 나라에도 널린 공원이나 정원을 보겠냐"고 지적했다.

그간 시는 경희궁지 정비를 위해 승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의 건축물을 복원했으며, 국가유산청 및 관리 단체(종로구청, 서울역사박물관)와 경희궁지 보존을 추진해왔다.

시 문화유산활용과는 "경희궁지 내부와 국립기상박물관·서울시교육청 부지, 돈의문박물관 마을 등을 역사문화공원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아울러 경희궁 추가 복원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이전,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막대한 복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장기 과제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양도성을 본래대로 되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 B씨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양도성은 우

리 선조들이 고된 부역을 하며 피할 수 없었던 '완전한 도성'이라면서 "반드시 100%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이간수문 구간, 월암 근린공원 구간, 회현 이동광장 구간, 인왕·백악·낙산·목멱산 구간 등에 대한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현재 혜화동 전시 안내 센터 주변(옛 시장 공관) 위험 구간 성벽 해체 복원 공사, 한양도성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인왕·백악곡성 구간 성벽 해체 보수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한양도성은 북한산성, 탕춘대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의 자문 기구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이코모스)로부터 예비 평가 결과를 받았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교육청, 학생·학교 중심 조직개편 단행

효율적 정책 추진, 안전관리 강화 앞장 협력·소통 등 3대 원칙 기반 부서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과 학교 중심의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소통 ▲포용·안전 ▲효율·집중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1실 3국 26과·담당관' 체제는 유지하되, 부서 간 중복업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중심 개편으로 추진됐다.

개편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 ▲안전총괄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

관(前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前 대외협력담당관) ▲창의미래교육과(前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학생역량·혁신교육과(前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민주시민교육과(前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총 7개 부서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 내 '학교업무개선팀'이 신설된다.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해 '안전총괄담당관' 내 '학교안전'과 '통학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로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폭설피해 복구에 총 677억 투입

피해 소상공인에 300억 지원

경기도가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1억5000만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

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해돋이 / 07:35 | 해질 / 17:14

오늘의 날씨

12월 9일 (월)
음력 : 11월 9일

수도권 날씨
-3 ~ 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이든, 시리아 반군 승리 선언에 "면밀히 주시"
▲트럼프-젤렌스키 회동...우크라이나 중전 속도 불나 /사진 뉴시스

▲애플, 퀄컴과 헤어진다...내년 자체 모델 스마트폰 출시
▲日언론, "탄핵 무산...韓 정치 혼란 계속될 듯"



▲탄핵표결 무산에 美, "민주적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노트르담 대성당, 화마 딛고 5년 만에 재개관 /사진 뉴시스